



국내 첫 농축산 미생물 생산동 정읍에 문 열어

국비 등 총 100억원 투입 국내 농축산 미생물 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국내 최초 GMP(우수 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이 정읍에 들어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29일 정읍 GMP 생산동 개소식 및 성과교류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소한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은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540㎡ 규모로 건립됐다. 이는 국내 유일의 농축산 분야 GMP 시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곳에는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장비,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췄으며,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미생물 분야 제품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펫푸드부터 비료와 작물보호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기업체들의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생물 분야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이사장인 양오봉 총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 국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정읍시 송금현 부시장,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 농축산용미생물 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또한 설치된 36개 부스에서 농축산 미생물과 관련한 연구성과와 관련 제



정읍 첨단산업단지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내 농축산용 우수 제조관리 기준(GMP) 생산동 개소식이 29일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설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품이 전시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진흥을 위한 기업 간 담담회 및 투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비타민하우스 자회사인 엔피케이(주)가 낙산균 및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에 문을 연 GMP 산업화 지원시설을 기반으로 미생물 산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미생물 산업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국비 300억원을 확보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사업과 그린 바이오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해 명실상부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혁 센터장(분자생물학과 교수)은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와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된 국내 유일의 농축산 분야 GMP시설을 통해 정읍은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친환경 농산물 수요의 증가와 반려동물 산업의 확대로 미생물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GMP 생산시설이 정읍을 미생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3종 25기의 분석 장비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사료시험 분석기관, 비료시험 연구기관, 농약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교권침해 현장인 전주A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나 악성 민원에 대해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교권 침해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하겠다”

서 교육감,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초교 방문 피해 교원·학부모 지원 약속... “교권 바로 세워 학습권 보장”

“악성 민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29일 교권침해 현장인 전주A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품살을 앓고 있는 학교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해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큰 피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A초등학교 교사 4명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2명의 학부모 중

B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해당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 교육감을 만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피해 교원과 학생에 대한 법적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강경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교사를 통해 방과 후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면서 “경우에 따라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국민 3명 중 2명 “불만족”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대응이나 후속대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시민 2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5일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134명(65%)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후속대책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압사사고에 대한 교육도 개별교육을 통해 스스로 수집한다는 응답이 102명(50%)으로 가장 높았다. TV와 인터넷, 신문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89명(43%)으로 뒤를 이었다.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행사주최 측이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117명(57%)로 가장 많았다. 실시간 군중 밀도 관리 시스템 도입(29명·14%), 응급 대응 훈련 및 시스템 강화(25명·12%) 등이 뒤를 이었다. /뉴시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신소장품전
Exhibition of New Collections

남원南原에서 In Namwon

2024. 9. 3. TUE - 2025. 1. 12. SUN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5579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합파우길 65-14
063-620-5660

관람시간 10:00~18:00
전시해설 매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입장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그 다음 평일이 휴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